

●● 장동일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회장

## 기자재 품질인증마크 정착화로 양축가 보호



### ▲ 장동일

1972.2 서울대학교 농기계학과 전공  
1974.7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1981.7 미국 캔서스주립대학교 석·박사 취득  
1984.3~현재 충남대학교 생물산업기계학 전공 교수  
1999~2001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 회장  
2002~현재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 자문고문  
2006~현재 (사)한국축산시설환경협회 회장

축산농가에서는 사양관리 뿐만 아니라, 축산기자재의 유무 및 제품 선택에 따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산기자재사업의 유통구조와 기술개발 보급을 위해 회원 상호간 기업 윤리를 꿈꾸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장동일 회장을 만나 양축가들이 기자재 구입시 안전하고, 확실한 AS를 보장 받기 위해 협회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 농업기계학 전문인

장동일 회장(60세)은 1972년 서울대학교 농기계학과를 전공하여 1974년 7월 한국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에 재직하면서 1977년 미국 캔서스주립대학교에서 농업기계학 농기분석 및 계측공학분야 석·박사를 이수하면서 전문인으로 기틀을 잡았

다. 이후 3년여간 미국 기자재 관련사 tech express inc.에서 연구실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1984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23여년간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산업기계학 전공 교수로서 후학양성의 길을 마련하고 있다. 1995년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 부회장에서 1999년도 학회 회장을 맡으면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자문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는 한국축산환경시설 협회와 자매기관으로 협회에 기술자문을 구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학회에서도 학술활동에 필요한 재정부담을 담당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품질인증마크로 경쟁력 확보

축산 기자재 시장은 현재까지 300~400여개의 수많은 업체가 활동하면서 서로의 경쟁으로 많은 발전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국내시장의 충분한 발전 가능 잠재력으로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 해외 기술박람회 등 참여를 통해 국내 기술을 알리고, 홍보의 장을 마련하여 일부 업체에서는 활발히 수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품질 향상과 국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협회에서는 '축산기자재 품질인증'을 지난 12월 제도화시키고, 오는 7월부터 국가공인기관의 기자재 성능 검사를 통해 '공인인증마크'를 실현할 계획을 갖고 있다.

품질인증은 농업공학연구소와 제휴하여 성능시험평가과에서 제품 카달로그의 성능과 차이가 없는지 성능시험평가를 시행하고 일치할 경우 품질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품질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구매후 2년안에 AS와 관련하여 100% 책임이 부여 되면서 우량 축산기자재의 공급촉진과 불량 축산기자재의 유통을 근절시켜 양축가의 피해예방과 축산기자재에 대한 사후 봉사기능 강화를 통해 양축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해 정책자금으로 4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축산분뇨의 처리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축산분뇨처리기계사의 기계시설은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품질인증을 받는 제도가 정착화 되지 않아 품질의 신뢰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고, 사후 AS 보장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지난 IMF를 겪으면서 몇몇업체의 축산분뇨처리 제조업체가 도산되어 AS가 부실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받은 기자재를 통해 품질향상까지 확실히 보장된 제품을 양축가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책임지고, 도산 등

로 인해 사후관리가 어려운 경우 2차적으로 협회에서 사후봉사를 실시할 것을 밝혔다.

또한 축산기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해 농가 구입비용 절감과 경제사업 수익을 창출하고, 양축 농가에게 제품의 구입이 용이하고 사후관리를

**養畜家 A/S를 위한 Good 마크**



본계품은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회원사의 생산품입니다. 회원사의 제품을 구입하시고 A/S에 불만이 생기셨다면 지금 곧 협회로 연락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자재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보장 마크. 스티커가 부착된 기자재는 농업공학연구소 성능시험평가과에서 성능시험평가를 거쳐 품질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AS등 사후보장이 가능하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발간되는 '축산기자재 공동구매 제품안내' 책자에 2007년부터는 품질마크 공인인증된 제품만을 책자에 기재할 것을 알렸다.

협회의 품질인증 및 사후봉사팀을 설치하여 우수 축산기자재를 농가에 보급하여 양축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끔 오는 7월 현장파견직원을 계획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산기자재의 품질인증 및 사후봉사이행보증 제도가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효과를 보고 있다.

비회원은 협회를 통해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해 판매예상가(제품단가)의 2% 정도 협회수수료와 농업공학연구소의 성능시험비를 부담해야 한다. 2백만원의 입회비와 6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면 협회 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KS마크에 주력

축산기자재에 필요로 한 부품 14가지는 이미 'KS마크'를 받으면서 축산기자재를 구입한 양축가는 AS 및 수리가 필요할 때 해당부품을 취급하는 기자재 업체 전국 어느 곳을 방문해도 보장 받을 수 있게끔 사후 호환이 되어있다.

이는 산자부 산하기관인 기술표준원에서 사업허가를 받고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5개 품목에 대해 KS마크인증 획득을 위해 추진 중에 있다. 이는 KS마크를 표준화하여 품질향상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계속사업을 위한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품의 KS표준화와 함께 기자재 완제품의 품질인증을 위해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에서 기자재별 품질인증 기준마련과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축산연구소에서 생산성품질 측정 검사를 시행하여 인증에

필요로 하는 규격 등의 부분에서는 협회에서 제도를 잡을 것을 밝혔다.

## 회원을 위한 협회 활동사항 추진

장동일 회장은 지난해 신임회장으로 부임하면서 회원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유대관계를 형성으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회원사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7~8월 회원사를 탐방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32개 회원사의 접촉을 통해 앞으로 축산기자재 산업의 발전과 회원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정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을 늘려 해외수출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정책지원을 꿈꾸고 있다.

## 2007 한국국제축산박람회 활발히 진행될 것

5개 단체가 공동추진하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이번 2007년 9월 12~14일에 개최된다.

국내 축산업의 기술발전과 설비 현대화를 유도하고, 국내외 축산기자재, 사료, 동물약품 등의 비교전시로 상호기술 및 정보교환을 통한 우리나라 축산발전에 기여하며, 전시업체의 해외 투자 진출 및 전시제품의 수출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전광역시 지자체에서 1억원의 자금지원과 대전광역시장상이 추가되는 등 KOTRA 대전지사와 대전광역시에서도 동참하고, 이벤트행사주관사로 축산신문사와 KBS 미디어가 선정되면서 국내외 홍보 및 다양한 해외업체유치 계획 등 예년보다 활발한 박람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 | 장성영 기자)